

광주시 전국 최고 수준 보육 서비스 펼친다

‘클린 보육 사이버 창구’ ‘모니터링단’ 운영 보험료·공제회비에 보육교사 수당도 지원

광주시가 올해부터 어린이 보육 서비스 분야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또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창구’를 운영하고, 공제회비도 지원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목표로 올해부터 학부모와 교직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클린 보육 사이버 창구’를 전국 최초로 개설·운영하는 한편 보

육교사의 현장 애로사항과 보육 품질 향상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어린이집 발전 방안을 수렴·반영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 모니터링단’을 5개 반 50명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급식 등 위생점검과 보육시설·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감시·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보육



광주시 주요 보육 서비스

교사에게 상해배상과 가스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아동 4890원, 교직원 1만2600원 등 어린이집 구성원에 대한 공제회비도 전액 지급한다.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시는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등 광주지역 933개 병·의원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건강검진제’를 통해, 만 5세까지 성장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카다리 건강수첩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육교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보육의 질 상승으로 연계된다는 분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담임 보육교사에게 설과 추석에 명절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모든 보육교사(5928명)에게 처우개선 수당으로 월 2만~10만원씩 지원해 근무 의욕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으로 우수 어린이집 50곳을 선정해 총 18억7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교재교구비 6억9400만원, 도서구입비 4억5600만원, 차량운영비·시설 기능보강비 4억4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짧은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광주에서만 끝나는 학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편안한 경제활동(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hucky@



광주 대표단,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민주정신 기리고 화합 다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대표단이 처음으로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정신을 기리고, 영호남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5·18단체 회장

단 등 광주지역 대표단 30여명이 지난 28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제54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사진>해 대구시민들의 민주항쟁 정신을 함께 기렸다.

‘2·28 대구학생의거’로 알려진 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지역 고교생들이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벌인 시위로 3·15 마산의거, 4·9 혁명, 4·26 대통령 하야까지 이뤄낸 전후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효시로 평가되는 있다.

호남지역 단체장이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운태 시장은 기념식에서 “2·28 민주운동이라는 훌륭한 민주화 정신 유산을 갖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가슴속 깊이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갖고 있는 숭고한 민주화 정신을 더욱 공감해 나가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만큼 앞으로도 모든 일에서 상호 협력해 영호남 화합과 국민 대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을 마친 강운태 시장은 광주 대표단과 함께 두류공원에 조성한 ‘광주 시민의 숲’을 찾아 광주시목인 은행나무를 심은 데 이어, 대구지역 주력산업으로 달성군 구지면에 조성된 ‘대구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을 둘러봤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3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영남지역 단체장 중에는 최초로 김범일 대구시장 등 대구 대표단들이 참석했었다.

한편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로, 지난해 3월 ‘달빛동맹 공동 아젠다 협약’을 체결해 사회간접자본시설, 경제산업, 환경생태,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5개 분야 10개 과제·23개 사업을 발굴, 협력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원, 10분안에 처리해 드립니다

광주도시공사 휴대폰 문자 민원 서비스

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가 3일부터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10분 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휴대폰 문자 서비스는 고객이 휴대전화로 민원부서 및 사업소 전화로 문자를 전송하게 되면, 각 부서 담당자는 컴퓨터에서 민원 접수사항과 민원처리 기간을 명시해 10분 이내 고객에게 문자를 전송한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즉시 문자 전송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기간이 필요한 민원은 처리기간 이내 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고객이 답변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부서장은 불만족 민원을 직접 처리한 후 고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시스템은 고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민원접수와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속도도 대폭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이 전화 문의시 통화중, 담당자 자리 이석, 전화 끊김 등 각종 불편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해결해 고객 만족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홍기남 사장은 “휴대폰 문자 민원서비스는 고객의 사소한 질문이라도 즉시 답변해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문자서비스 전화번호

부서명	대표번호	부서명	대표번호
홍보고객팀	371-6850	실내수영장	380-6800
분양보상팀	371-6845	실내빙상장	380-6880
분양보상팀	374-6846	황금주차장	222-2077
주거복지관리관	371-6880	하남2공공임대	951-6865
주거복지관리관	371-6881	하남2국민임대	951-6862
영락공원사업소	572-4384	신항국민임대	951-6879
빛고을골프장	672-7400	금호영구임대	371-6883
상무골프연습장	371-7082	하남영구임대	945-6897
염주골프센터	380-6870	쌍촌영구임대	371-6867



체력가득, 행복가득

광주시 서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체력가득 행복가득 운동교실’에 참가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실버댄스를 배우고 있다. <서구청 제공>

140개 업체 광주서 국제기후·환경산업전

9월 15~17일 DJ센터...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도

광주시가 국내 유일의 기후·환경산업 통합 전시회인 ‘2014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14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 주관해 오는 9월 15일~17일 140개 업체, 350개 부스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산업체를 유치해 환경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고 국내는 물론, 환경산업 중점 협력국인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등 외국 바이어를 유치해 비즈니스 성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일반 시민 관람객을 위한 친환경 상품 판매, 대기업 및 NGO 등과 환경체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에 ▲국제관계배수위원회 광주총회 ▲호남권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 ▲물관리 심포지엄 ▲국제환경산업컨퍼런스 등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지

난 2009년 제1회 개최 이후 지난 5년간 연인원 8만2000여명이 관람하고 포스코, 현대건설, SK건설, 코오롱건설, 두산건설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해양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상청 등 환경과 기후관련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기업 참여 확대로 338건의 수출상담과 57건 4769만달러의 MOU를 체결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제인증전시회로 공인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너릿재 옛길 ‘명품 숲길’로 거듭난다

동구 5억원 들여 꽃·나무 심어 산책로 조성

광주와 화순을 잇는 너릿재 옛길이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숲길로 거듭난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8일 너릿재 순환형 산책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꽃·나무를 심은 너릿재 명품 숲길 공사를 끝낸 뒤, 광주천과 너릿재 옛길을 잇는 연결 산책로 조성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6월 초 광주천~너릿재 연결

산책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광주천 둔치~연결 산책로~명품 숲길~누리길~광주천으로 돌아오는 총 연장 4.05km(2시간 코스)의 너릿재 순환형 산책로가 탄생하게 된다.

노회용 동구청장은 “광주와 화순을 잇는 너릿재 옛길을 명품 산책로로 조성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광주의 명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을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을 58dB이하 중량충격을 50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을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수인한도기준	주 간 40dB이하 야 간 35dB이하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주)금용건설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